

인문계열 논술문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p>※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마]는 복지국가에 관한 이념, 정책 유형, 사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p> <p>【가】</p> <p>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거나 혹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의 행위는 막연히 경제성장 혹은 경제부흥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한다는 원칙론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정한 생활수준, 예컨대 국민 최저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없도록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최저생활 수준으로 떨어지는 국민에게는 생계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p> <p>복지국가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성립되었다. 1942년 12월 영국에서 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¹⁾는 실천 방법을 둘러싸고 당파와 이해집단에 따라 반대와 이견이 존재했다.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을 실천하는 데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처칠 전시 내각 수장은 보고서 내용의 실천을 미루었는데, 선거 결과 보수당이 참패함에 따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될 수 없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적극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당이 집권했고, 노동당 정부의 주도로 보고서 내용을 실천하는 주요 제도들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선거 국면에 접어든 보수당의 입장은 적극 찬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때문에 자유당과 노동당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책상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더 적극적인지,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재원을 사회복지에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했고,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노동당이 더 많은 선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p> <p>복지국가 탄생 과정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사실은, 복지국가와 이념적으로 가장 친화성이 있는 정파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중도 좌파라는 것이다. 유럽국가에서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정당들은 노동당, 사민당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 대중인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정치권력 획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 현상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비해 과도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바라본다. 반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등, 결과의 평등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사회, 인간의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사회이고, 이러한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존재하는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가면 언젠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은 복지국가 전략과 매우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p> <p><small>1)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 1941년 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위원장 W.H. 베버리지가 제출한 보고서. 여기서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는 궁핍 해소이며,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보장보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mall></p> <p>【나】</p> <p>미국은 신대륙에 이주민들이 건설한 국가이다.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매우 존중된다.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빈곤 계층을 돕거나 노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의 역할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늦었다. 독일이 사회 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한 시기가 1880년대였는데, 미국은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후인 1930년대에야 비로소 사회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 보험제도 도입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 보험을 만들지도 못했다. 미국의 사회 보험에는 질병에 대비하는 의료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민간 상업 보험회사들이 만든 건강 보험은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으로서의 건강 보험제도는 미국에 도입되지 못했다. 사회 보험도 없고, 무료 의료 서비스 체계도 없으므로,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상품 시장에서 구매해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구매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는 국가에 의한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p>이러한 미국의 특징은 사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복지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의 공공 재원을 사회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가 1980년에 GDP의 약 31%를 사회 복지 관련 분야에 지출한 데 비하여 미국은 17.7%만을 공공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복지 국가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미국을 지체된 복지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p>		
<p>【다】</p> <p>스웨덴 정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 외에 예방 정책에도 강조점을 둔다. 이는 스웨덴의 사회 정책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대적 빈곤의 감소와 사회적 평등을 증대시키는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지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으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직의 경우 실업보험금고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재해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여금 없이 병가급여·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령의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600일(근무일수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등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자산조사를 거쳐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무료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선택이 복지수요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관·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가격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성격을 띠고 있다. 서비스 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수요자 선택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낮아 이용자가 없는 시설은 자연적으로 적자를 보거나 도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은 생존하기 위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매년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복지대상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p>		
<p>【라】</p> <p>고구려 때 을파소라는 사람은 농민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농민들은 잦은 전쟁과 귀족들의 수탈로 생계가 매우 어려웠다. 흉년이라도 들면 귀족들에게 비싼 고리대를 빌려다가 연명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을 노비로 보내기까지 했었다. 을파소는 햇곡식이 채 자라지 않은 봄철마다 식량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진대법(賑貸法)’이라는 빈민구제제도를 만들었다. ‘진대법’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가장 큰 효과도 있었지만, 국가 재정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농민이 안정되니 세금이 안정되어 국가가 안정되었고, 비싼 고리대로 부를 불러가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에서는 더 이상 굶어죽는 농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p> <p>한편, 조선에는 구호제도로 혼인보조금제도가 있었다. 양반의 자녀로서 혼인비용이 없어 서른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비용을 부조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고조(顧助)’라고 불렀는데,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 비용은 호조(戶曹)에서 대도록 되어 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에도 왕이 혼인비용을 부조하도록 명을 내린 적이 있다. 세종6년 2월 20일에 경기감사가 “유음자손(有陰子孫, 부모가 벼슬을 산 경우)에게는 쌀과 콩 각 2석씩, 그 나머지에겐 각 1석씩을 혼수비용으로 내어주게 해달라”는 청을 해와 세종이 허락한 적이 있다. 또 이듬해 11월 22일에는 지방의 수령이 관의 재물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내릴 때 혼수비용에 쓴 것은 제외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다. 성종은 “인륜의 도리가 혼인보다 중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사는 원녀(怨女), 광부(曠夫)가 없게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p>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마】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공공부조 제도는 현재 빈곤한 계층, 즉 최저 생활수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가 인정한 최저 생활수준 이상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로 마련하며, 지원에 대해 나중에 갚거나 이자를 지불하는 등의 의무가 없는 대신, 빈곤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따른다.

‘사회보험’은 장래에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닥쳐 빈곤해질 때를 대비하여,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항상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험은 정부가 법을 통해 강제로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일반 재원인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일반세금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방식이므로, 사회 보험 재원에 일반 조세가 투입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부(富)의 재분배 효과는 더욱 확대된다.

‘사회수당’ 형태의 복지제도로는 아동 수당,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제도는 공공부조와 달리 특정한 인구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무료 급여를 제공한다. 즉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으니 당연히 실적 또한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수당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낙인효과, 소위 스티그마 효과²⁾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매매된다. 사회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간병 서비스, 보육 서비스, 장애인 재활 서비스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금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보장 복지제도에서는 재분배 효과와 형평성 등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 것인가를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분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와 같은 전문적 기술과 기법 등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2) 낙인효과 또는 스티그마 효과: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문제1>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근거로 (나)와 (다)에 언급된 두 나라 복지정책의 특성을 평가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2>

(라)에 소개된 우리 전통사회의 복지제도는 (마)에 나타난 여러 제도 가운데 무엇과 유사한가? 그 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나)와 (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을 논하시오. (1000자 내외)

인문계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이번 인문계 논술고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지는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지만 보편적 복지와 망국론 사이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육아와 교육, 노인, 보건 등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없어 갈등과 불화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의 비전, 모델이 없이 인기 위주의 정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안되고 시행된 탓이다.

이 시험에서는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 탄생의 과정과 이념을 살피게 하였고, 복지제도의 두 유형을 대변하는 미국형과 스웨덴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였다. 첫 번째 문제에서 지문을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성을 평가하라는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과거 전통 사회에서 시행된 복지제도를 예로 들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제도와 유사한지, 그리고 그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였다. 우리가 과거부터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제도와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지의 문제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오랜 숙제였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오늘날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장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을 논하게 하였다. 이상의 문제를 통해서 이해력, 논리적인 설득력, 분석력, 실제 현실에 대한 응용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복지국가의 탄생 과정과 이념적 기초를 다루고 있다. 1940년대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복지국가와 이념적으로 가장 친화성이 있는 정파는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좌파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 대중인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정치권력 획득을 도모한다. 또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사회, 인간의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기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존재하는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간다면 이러한 이상사회를 언젠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미국이 선택 복지를 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바탕과 현대 미국 사회의 복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 보험제도가 없으며 미국의 사회 보장 관련 재정 지출이 유럽 복지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고려하여, 미국을 ‘지체된 복지 국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성공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 스웨덴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무료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은 복지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선택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 하락을 막는다.

제시문 [라]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 실시되었던 선택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빈민구제제도인 진대법(賑貸法), 조선의 혼인보조금제도인 고조(顧助)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진대법은 식량이 부족한 봄철에 농민들에게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어 추수하면 갚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비싼 고리대로 부를 축적하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조와 같은 혼인보조금 제도는 원녀(怨女)와 광부(曠夫)가 없도록 함으로써 임금이 나라의 평안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다하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제시문 [마]에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시행되는 네 가지 복지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 각 제도의 취지 및 제도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는 빈곤 계층이 최저 생활수준 이상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보험’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사회보험의 재원에 일반 조세가 투입될 경우 부의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수당’은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과 같이 특정한 인구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복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보육 서비스와 같이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지원인데, 사회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현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 해설】

문제1은 학생들의 지문 독해와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가지의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가>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여 요약하는 것이다. 둘째, <가>의 논점을 근거로 <나>와 <다>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특성을 찾아내어 평가하는 것이다.

<가>의 핵심 논지는 첫째, ‘복지국가’의 정의가 무엇이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최소 역할은 무엇인가에 있다. 둘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최초로 제기되었던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천 방법을 두고 서로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었던 ‘자유당[자유주의]’과 ‘노동당[사회민주주의]’의 사회보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다. 결국 <가>는 복지국가가 의회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된 국가로서, 복지국가 태생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가까운 쪽은 중도 좌파라 불려지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이나 사민당(사회민주주의당)은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와 인간의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 그리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이 없는 공극적 이상사회로서의 복지국가 건설에 한 층 더 다가서는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위와 같은 <가>의 논점을 근거로 미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나>와 <다>의 글을 통해 양국의 복지정책 특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미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나라로서 ‘국가’는 국방과 질서유지 이외에 그 어떠한 측면에서도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사생활 보

장·신체의 자유·재산 소유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 예컨대 빈곤층이나 노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저촉 행위이며 국가의 월권행위로 간주되어, 1940년대 유럽에서 시행되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주관하는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여, 국민은 민간의 상업 보험회사에서 의료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 체계도 없으며, 마치 상품시장에서 값비싼 재화(財貨)를 구입하듯 의료서비스를 구매·소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매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상품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에 스웨덴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의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 그리고 각종 예방정책에 중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의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등을 증대시키는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즉 스웨덴의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겐 아동수당과 무료 교육을, 실직자에겐 기초실업급여 등 다양한 공공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스웨덴은 아무리 국가가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라 하더라도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권리가 복지수요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 이용 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수요자 선택에 의한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1에서는 복지정책에 관한 두 이념의 상관성을 논점으로 하여, 미국과 스웨덴에 적용된 복지정책의 특징을 찾아내어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2는 학생들의 지문 이해 능력과 응용능력,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창의적인 시각과 논리적 서술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라>에서 기술한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복지제도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현대사회의 복지제도와 결부시킬 줄 알아야 하며, 그 복지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 방향을 창의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먼저 <라>에서 기술되고 있는 전통사회에서의 복지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조선의 ‘훈인보조금제도[顧助]’이다. 전자는 빈민구제제도로써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구제효과에 가장 요긴한 제도였으나, 이는 오히려 국가 재정의 안정과 특정 계층의 권력을 약화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후자 역시 특정 계층을 상대로 국가(왕조)가 보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빈민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족과 일반인(원녀, 광부)에게까지 그 혜택이 고르게 주어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전통사회에서의 복지제도는 과연 <마>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 가지의 복지제도 가운데 어느 쪽에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물론 전제군주제 사회와 현대사회를 대등한 관계에서 비교하는 것은無理일 수 있으나, 왕조나 국가가 백성과 국민을 상대로 복지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진대법’과 ‘훈인보조금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볼 때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들의 장단점은 <마>의 제시문 안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즉 문제2의 두 번째 물음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이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수당이 등장하였음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현실에 접목시켜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을 제언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부조는 무엇보다도 재원(財源) 확보가 우선이므로 국가의 일반조세 마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의 미국과 <다>의 스웨덴 사례를 근거로 조세를 복지에 투여하는 비중에 대한 언급이 수반된다. 나아가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재분배 원칙, 즉 누진세 적용을 통한 상대적 빈곤감의 해결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부조는 극빈층에 대한 조사 여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들에게 빈곤 여부를 묻는 조사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뒤따르게 되는 폐단을 갖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창의적 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수당’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이들, 즉 노인·아동·장애인에게 무료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젊은 층에 비하여 노년인구가 극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수당이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국민 건강보험과 <다>의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보편복지, 그리고 각종 보건 의료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창의적 제언이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